



박소현의 섹.시.토크

고스톱을 치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B였다. 평소 고스톱을 비롯해 모든 잡기를 좋아하는 B의 남편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관돈도 없이 무슨 재미로 고스톱을 쳐?” “우리도 옷 벗기 고스톱 한번 쳐 보자. 어때?”

순간 남편의 표정이 떨떠름하게 바뀌는 것을 보고 B는 속으로 ‘젠장’하고 외쳤다. 이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은 옆 동 사는 친구였다.



아이가 할머니 댁에서 자고 온다는 말을 하자 친구는 그럼 남편과 오랜만에 흐뭇한 시간을 보내라며, 분위기 띄우는 방법의 하나로 ‘옷 벗기 고스톱’을 알려주었다.

보여줄 거라곤 처진 뺨살 밖에 없는데 과연 하나씩 옷을 벗을 때 마다 흥분되기는 할까? 그렇게 하나씩 벗기면서 보여주지 않아도 뻘뻘 보는 앞에서 흘려뺀 옷을 벗고 갈아입으며 매일같이 보던 몸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지만 막상 주말 저녁이 되자 이상한

“옷 벗기 고스톱 한번 치자” “그것보다 옷 입기 고스톱어때?” 기대했던 예로물 놀이가 명랑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기(?)가 발동해, 결국은 친구의 조언을 따르고 말았던 것이다. 말해놓고 나서도 B는 약간 민망한 기분에 남편의 표정을 살폈다. 남편은 잠시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다. ‘맞아, 괜히 이야기 했어, 이게 무슨 망신이야!’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입을 열었다.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B가 생

게임은 아무나 하나

각한 것과는 조금 달랐다. “옷 벗기기도 좋지만, 그것보다 옷 입기 고스톱어때?” “옷 입기?”

“한판씩 질 때마다 하나씩 껴입는 거야. 생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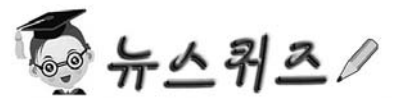
그리고 나서 정확히 한 시간 뒤, B는 양말 두 개에 스웨터 세 장, 겨울 외투에 모자까지 쓰고 거실에 앉아 있어야 했다. 앞서 내리 여덟 판인가를 이긴 남편은 달랑 조끼 하나를 더 입었을 뿐이었다.

“당신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정말 웃는다. 눈사람이 따로 없네. 사진 찍어도 될까?”

핸드폰 카메라를 누르는 남편 앞에서 B는 활짝 웃으며 손가락으로 V를 그려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오랜만에 돌아서만 보내는 주말에 B가 기대한 건 예로물 놀이였는데, 명랑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남편의 고도의 전술에 밀려든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기대가 너무 큰 것이었는지, B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말을 실감했다. 이런 아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패를 섞으며 신나서 외쳤다. “딱 열 판만 더 하자, 좋지?”

<연재칼럼리스트>



85.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최근 인간이 이기한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와 이 사람을 2007년 노벨 평화상의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 ①엘 고어 ②조지 부시 ③무하미드 유누스 ④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처변환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9일 (음 9월 19일 丙戌)

Table with 12 rows of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of October 19th.

청순미인 손예진, 소매치기로 파격 변신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연예계 대표적인 인기 부부 박철(39)·옥소리(39)씨의 파격 소식이 인터넷을 달궜다. 또 파격 소식이 전해진 뒤 옥소리 씨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들이 급증했고 미니홈피를 찾은 네티즌들에 의해 이들의 단란했던 사진과 “안타깝다”는 글도 잇따라 인터넷에 올라왔다.

한화 투수 안영명(23)도 플레이오프 2차전의 빈불성 투구 때문에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두산과 한화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잠시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이 담긴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퍼날라지고 있다.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유명 연예인들도 근황이 소개되면서 잇따

라 검색어에 올랐다.

지난 2005년 유주운전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클릭B의 멤버 김상혁(24)이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 “술을 끊고 반성하며 열심히 운동했다”며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를 공개했다는 소식과 지난 2005년 발행된 베스트셀러 도서 ‘마시멜로 이야기’의 번역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대리 번역 논란을 일으켜 방송 활동을 접었던 MC 정지영(32)이 1년 여 만에 라디오 DJ로 복귀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외 영화 ‘무방비 도시’를 통해 소매치기 조직 리더 백장익 역할을 맡아 파격변신을 시도하는 배우 손예진(25), SBS ‘이경규 김용만의 라인업’ 제작진이 개그맨 김구라가 선배 김경민에게 “정신차려 이 새끼야”라고 말한 장면을 삭제 없이 난보낸 것과 관련, 공개 사과



영화 ‘무방비 도시’에 출연하는 배우 손예진이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했다는 소식, 백인모델들로 패션쇼 무대가 채워지고 있는 기현상을 꼬집은 한국계 흑인인 신에 모델 샤넬 이만 로빈슨(17) 등도 검색어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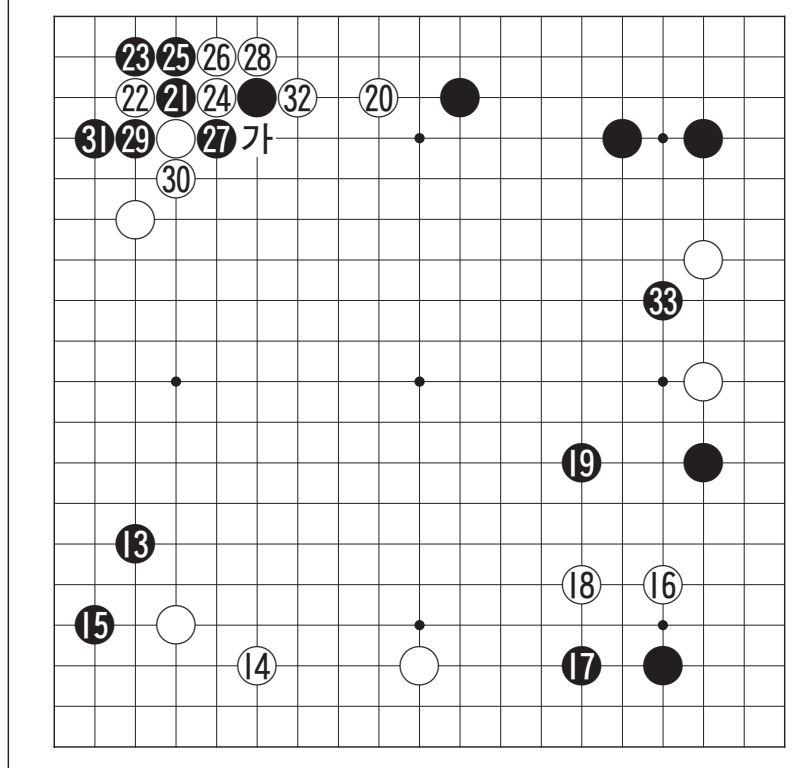
바둑소식

이세돌, 내달 1일 국수전 도전

이세돌 9단이 18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51기 국수전 도전자 결정전 3경기 2경기에서 최기흥 초단을 111수 만에 흑 불계로 제압, 도전권을 획득했다.

이세돌은 이날 초반부터 공격적인 행마로 최 초단을 밀어붙인 뒤 중반 이후 백 대마를 포획, 단 한 차례 역전 기회도 허용하지 않고 완승을 거뒀다. 이세돌은 오는 11월 1일 전기 대회 우승자 윤준상과 5경기 승부를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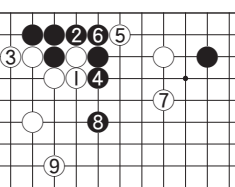
조훈현, 박정상, 이희성 등을 연파하고 도전자 결정전에 오른 최 초단은 패기를 앞세운 대국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승상금은 4천500만 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 바둑협회 최강배 바둑대회

최강부 준결승 2국

상반된 스타일 2보(13~33) 백 심재욱 6단 흑 노기철 5단



<참고도>

심재욱 6단은 살리 과로 행마가 날렵하고 제 치가 넘친다. 그러나 뽀빠움을 벌이면 쉽게 물러서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대로 노기철 5단은 세기에는 떨어지지만 공격력

다운 수법이며 흑 19를 외면하고 빠르게 백 20으로 상변에 쳐들어간 것도 집에 매우 민감한 모습이다.

흑 21은 상용의 맥점으로 최근에는 3,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수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 백 26으로는 ‘참고도’의 백 1로 잇고 9까지도 많이 두어진다. 실전은 모양이 결정되는데 비해 이것은 뒷맛이 많이 프로들이 선호하는 그림이다.

흑 31로는 ‘가’에 하나 이어두고 백의 태도를 살린 다음 31에 두는 것이 좋았다. 흑 33으로 짙어 중반전에 접어들고 있는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굿모닝 잉글리쉬 <1015>

오하오우 니혼고 <1015>

니하오 쑹구위 <205>

한자 이야기 <632>

I forgot my bag in~. 제가 제 가방을 ~에 놔두고 왔는데요

- A: I forget my bag in your theater. B: Do you remember where you left it? A: Yes. Under the seat. B: Well, I think it was D-56.

- A: 제가 극장에 제 가방을 놔두고 왔는데요. B: 기억하십니까? 어디에 놔두셨는지? A: 네, 좌석 밑에요. B: 알았습시다. D-56인 것 같군요.

- * I forgot ~ : ~을 잃어 버렸습니다. =I leave ~ * 참고 : mplace = 돈 곳을 잃어 버리다 * I think ~ : 아마 ~인 것 같습니다.

誕生日(たんじょうび)プレゼントにどうかしら. 생일 선물로 어떨까?

- A: この服(ふく), 洋子(ようこ)ちゃんの誕生日(たんじょうび)プレゼントにどうかしら. B: うん. いいじゃない. 彼女(かのじょ)にぴったりだと思(おも)うわ. A: そう.じゃこれに決(き)めましょう. B: 彼女喜(よろこ)ぶわよ. こんなデザインの服(ふく), 欲(ほ)しがってたから.

- A: 이 옷, 요꼬씨 생일 선물로 어떨까? B: 응, 괜찮네. 그녀에게 딱일 것 같아. A: 그렇지? 그럼, 이걸로 결정하자. B: 그녀가 기뻐할 거야. 이런 디자인의 옷 갖고 싶어 했거든.

プレゼント: 선물
どうかしら: 어떨까?(여성어투)
ぴったりだ: 딱맞다
喜(よろこ)ぶ: 기뻐하다

不会错 틀릴 리 없습니다.

- A: 不会吧, 我们认真检查过了. B: 不会错, 报表我看过. A: 能多长时间吗? 双方核对一下. B: 可以, 周五上午来吧. A: 大概 2 点的吧, 资料已经整理好了. B: 麻烦了, 谢谢. A: 没事, 您客气了. B: 好的, 再见.

认真 [rènzhēn] 성심하다
核算 [huàncá] 심사하다
报表 [bàobiao] 보고서
核对 [duìduì] 대조 확인하다

乾坤一擲(건곤일척) 하늘 건, 땅 곤, 한 일, 던질 척

건곤일척(乾坤一擲)은 하늘이 땅을 한 번 던져서 결정한다는 뜻으로, 운을 하늘에 맡긴 단판 승부를 말한다.

옛날 진(秦)이 망하고 초(楚)의 항우(項羽)와 한(漢)의 유방(劉邦)이 서로의 세력을 넓히기 위하여 치열하게 다투다가 하남성 홍구(鴻溝)를 경계로 동쪽은 초가 서쪽은 한이 차지하기로 하고 싸움을 멈췄다. 항우는 유방의 아버지와 아내를 돌려내고 평성을 향해 철군 길에 올랐다. 이어 유방도 철군하려 하자 참모인 장량(張良)과 진평(陳平)이 유방에게 “한나라는 천하의 태반을 차지하고 제후들도 따르고 있사오나 초나라는 군사들이 몹시 치치고 게다가 군량마저 바닥에 닳았습니다. 이아말로 하늘이 초나라를 멸하려는 천의(天譴)이오니 당장 쳐부셔야 합니다. 지금 차지 않으면 ‘효랑(虯)을 길러 후환을 남기는 풀(양호유란, 養虎遺患)’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자, 마음을 바꾼 유방은 말머리를 돌려 항우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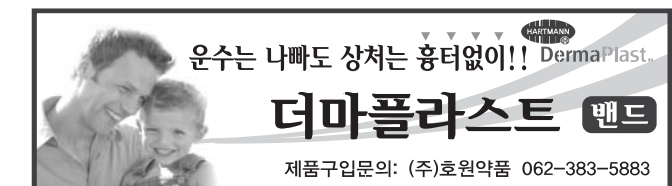
윗날 당(唐)나라의 환유(韓愈)가 이곳을 지나다가 옛 일이 생각나서, “용은 지치고 범도 피곤하여 강과 들을 나누어 가졌다 / 이로 인해 억만창생의 목숨이 살아남게 되었네 / 누가 임금에게 권하여 말머리를 돌리게 하고 / 참모 한 번 던져 하늘과 땅을 걸게 하였는고(真成一擲乾坤)”라는 시를 지었다. (過鴻溝)

<한예원(韓喜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7~8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